

한달 23건꼴... 제주 작년 행정소송 최대

2014년 114건→2019년 236건→작년 11월 기준 257건
건축허가와 취소·토지수용 등 행정처분 불복 대다수
도, 승소 자신하던 '영리병원' '렌터카 운행제한' 패소

제주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제기 되는 행정소송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2014년 114건에 머물던 행정소송이 2018년 192건, 2019년 236건, 2020년 23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11월 기준으로 257건이 접수, 이미 전년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행정소송은 건축허가·취소, 토지수용, 원상회복명령 등 행정 처분에 불복해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징계나 수당금, 손해배상 등 개인적 차원에서의 소송도 심심치

않게 제기된다.

제주도가 패소한 대표적인 행정소송은 녹지그룹이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렌터카 업체들이 제기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꼽을 수 있다. 이 소송들은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호언으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반면 서귀포시가 위법 사항(공공도로 차단)을 발견, 원상회복 처분을 내린 고급 주택 단지 비오토피의 경우 현재 항소심까지 승소했고, 업체 관계자에게 술을 얻어 먹



현재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옛 녹지국제병원 전경.

연합뉴스

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2명이 제기한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 역시 이겼다.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소송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고 있고, 도민들의 법 인식 수준도 전보다 높아지면서 관련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주로 제기된 소송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자동차(렌

터카) 등록 관련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와 달리 개발 행위 관련 법률이 강화되는 등 행정소송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제주도에서는 고문·상주 변호사 13명을 배치했으며, 소액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맡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은법기자 seb1119@ihalla.com

“대법원 영리병원 승인은 공공의료 파괴 전초전”

의료영리화저지운동본부 17일 기자회견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는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중의 염원인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자본의 영리병원을 선택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내팽개친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3일 대법원 특별 1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병원 관련 재판은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재판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중국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보

건복지부 승인 당시 녹지그룹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사업 방향이 명시돼 있다며 소송에 자신감을 표명했지만 결과는 처참할 뿐”이라며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문제를 재판이 아닌 제주도-JDC-중국 녹지그룹 등 3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지만 제주도는 꾀등으로도 듣지 않고 방관했다”고 덧붙였다.

도민운동본부는 “2018년 영리병원 공론화 조사를 통해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개설 불허’ 권고를 내렸지만 원희룡은 제주도민의 결정과 반대로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며 “원희룡은 조건부 허가가 피해를 최소화할 ‘신의 한 수’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녹지국제병원원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도영기자

였다며 자화자찬했지만 이는 자충수가 돼 돌아와 모든 피해는 도민에게 떠맡겨졌다”고 말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영리병원 관련 문제 해결과 대책도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더욱 큰 문제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종결에 따라 잠정 중단됐던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청구 소송’도 3월부터 재개된다는 점”이라며 “이 재판마저 제도가 패소하면 내국인도 이용 가능

한 완전한 영리병원 개원이 가능해진다. 도민의 반대에도 ‘독단적 행정’으로 화를 키운 제주도는 도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하며 영리병원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단순히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영리병원 승인이 아닌 전국 영리병원 확산의 신호탄이며 공공의료 파괴의 전초전이다”고 말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둘로 나뉜 중 1학년 교육과정

35개교 ‘자유학기제’로 2학기 내신 무반영 지필평가
10개교 종전대로 ‘자유학년제’ 운영... 지필평가 ‘무’

올해 도내 중학교에서 두 개의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대다수의 학교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주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1학년 2학기에 고입 내신 산출에 반영되지 않는 지필평가를 치르게 되는 가운데, 일부는 종전 ‘자유학년제’를 유지하면서 1학년 동안 지필평가를 치르지 않는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전체 45개 중학교 가운데 35개교(제주시 21개교, 서귀포시 14개교)는 올해 ‘초·중·고 연계 자유학기제 교육과정’인 ‘제주 꿈끼이음123 교육과정’을, 10개교(제주시 9, 서귀포시 1)는 기존 1학

년 ‘자유학년제’를 운영한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TF를 구성해 2022개정교육과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맞춘 ‘자유학년제’ 개선방안을 논의, 올해 중1 학생들에게 적용될 ‘꿈끼이음123’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1학년 1학기 자유학기, 3학년 2학기 진로학기 운영을 통한 초 6학년부터 고 1까지 연계되는 진로·진학교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종전 ‘자유학년제’로 치러지지 않던 중 1학년 지필평가가 2학기에 부활한다. 단, 평가 결과는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한글 미해득·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감소

교육청 2021년도 성과 발표

지난해 도내 한글 미해득과 기초학력 기준 점수 미도달 초등학교 수가 전년과 비교해 감소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1학년도 기초학력 향상 지원성과를 17일 발표했다.

한글 학습 지원 프로그램 ‘한글 도박도박’을 통해 한글 해득 수준을 검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초 1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은 6650명 중 152명(2.29%)으로 2020년 12월 209명(6527명의 3.20%)보다 줄었다. 초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도

지난해 19명(6656명의 0.29%)으로, 2020년 70명(7325명의 0.96%)보다 감소했다.

초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학력(3R's-읽기, 쓰기, 기초수학)검사 결과 기준 점수 미도달 학생도 지난해 12월 기준 2만8158명 중 85명(0.3%)으로, 2020년 12월 106명(2만7210명 중 0.39%)과 비교해 감소했다.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감소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촘촘한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면대면 지도 강화, 교사들의 책임지도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오은지기자

강풍에 찬 공기 남하... 체감기온 ‘뚝’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당분간 제주를 평년기온을 밑도는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17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19일까지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매우 춥겠다.

1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 낮

최고기온은 5~10℃이며, 19일 아침 최저기온은 0~2℃, 낮 최고기온은 7~9℃로 예상됐다.

아울러 18일 새벽 예보된 눈 또는 비로 인해 중산간 이상 도로에는 결빙 구간이 발생해 사고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21일 평년기온(2~10℃)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송은법기자

승진
부이사관 서기관



양 제 윤



문 경 중

부이사관 및 서기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봉진회 회원 일동

승진
부이사관



양 제 윤

부이사관 승진과 정부합동평가 유공 인정포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3회 동창회 일동**

승진
부이사관



좌 정 규

부이사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일동